

대통령 방문을 넘어, 광주 공약의 실현으로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소통의 자리였다. 대통령은 “오고 싶은 분은 누구나 오시라”며 시민과의 거리를 허물었고, 광주의 민심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이었다. “수도권이 미어터질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한다”, “균형 발전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그의 발언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필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메시지였다.

필자는 지난 6월 23일 광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광주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 이 시점은 새롭게 짜여지는 국정 운영의 틀에 광주의 미래를 온전히 담아낼 절호의 기회를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광주의 이 같은 요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광주는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최후 보루였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그랬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빛의 혁명’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격변 속에서, 바로 그 광주정신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광주·호남에서 찾아보자”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국가가 광주에 응답해야 한다. 동시에 광주 스스로도 치밀한 준비와 실천을 병행해야 한다. 정치가 앞장서고, 행정이 정교하게 계획을 세울 때, 변화는 현실이 된다.

첫째, 광주시는 행정의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7대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정책 설계와 단계별 예산 확보 전략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파를 뛰어넘는 ‘범정치세력 TF’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부처·국회·당정청을 아우르는 광주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정치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셋째, 광주시민 모두가 변화의 주체로 함께해야 한다. 온라인 국민제안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공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고, 일상 곳곳에서 광주의 목소리를

함께 키워가야 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민·군 통합 공항 이전 문제’를 핵심 의제로 직접 지목하며 “정부 전담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답보 상태였던 공항 이전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군 통합 공항 이전을 포함한 ‘광주의 7대 핵심 공약’은 단순한 지역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육성, 아시아문화화중심도시 3.0 추진,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까지. 이 모든 과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방문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광주의 핵심 공약이 모두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국민주권정부가 광주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광주 역시 멈춰 있을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 스스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실천해야 한다. 정치의 결단, 행정의 준비, 시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우리의 요구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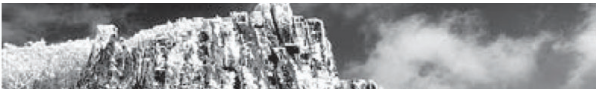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약 50분간의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UPI 연합뉴스

서석대

“짱뚱어를 이대로 죽일 것인가.”, “짱뚱어를 살리자고 사람을 죽일 것인가”. 지난 1997년 일본 정치권이 난데없는 짱뚱어 논쟁에 휩싸였다. 쌀 생산을 위해 규슈 이사히야 만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그곳에 서식하던 짱뚱어가 대거 폐사했기 때문이다. 착공 당시부터 환경파괴와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간척사업. 하지만 물막이 공사 가 끝난 이후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말라가는 광대한 갯벌은 일본인에게 충격이었다. 물을 찾아 퍼덕이다 죽어가는 짱뚱어의 모습도 섬뜩했다. 이른바 ‘이사히야만 짱뚱어 사건’. 비록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전세계에 갯벌과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개발이 우선이었던 시절, 죽어가는 짱뚱어들이 지불한 ‘비싼 수업료’였다.

2016년 여수MBC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갯벌에 물들다’는 순천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이다. 약육강식의 현장인 갯벌은 무수한 생명체가 꿈틀대는 생명의 터전이었다. 경쟁하고 싸우고, 먹고 먹히면서도 서로가 공존하는 화엄의 세계이기도 했다. 특히 그곳에서 만난 최고의 생명체는 단연 짱뚱어였다. 살아남기 위한 짱뚱어의 집요하고 처절한 노력,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갯벌을 박차고 도약하는 모습에는 힘이 넘쳤다.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대를 잇기 위해 짝짓기에 나서는 모습도 경이로웠다.



짱뚱어 지키기

짱뚱어는 전남 서·남해안 갯벌에 사는 망둥어과의 물고기다. 아가미와 허파로 숨을 쉬고 겨울이면 뱀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민첩성도 뛰어나 짱뚱어를 잡으려면 일명 ‘홀치기’ 낚시를 해야 한다. 갯벌 위에 낚시를 던져 조심스럽게 끌면서 재빨리 낚아채는 방법이다. 못생겼다는 것도 짱뚱어의 특징이다. 그래도 짱뚱어는 가슴과 꼬리에 붙은 강한 지느러미로 어떤 물고기보다 힘차고 멋진 포즈를 만들어낸다. 썰물 때면 뱀발에 나와 폴짝폴짝 뛰는 모습도 ‘갯벌의 재간둥이’라는 별명에 제격이다.

순천시가 사라져가는 짱뚱어잡이인 ‘홀치기’ 보존을 위해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신청에 나섰다. 홀치기 짱뚱어잡이는 지난 2021년에 도전했으나 현장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다. 홀치기는 장대에 10m 안팎의 낚시를 달아 짱뚱어를 훑어 낚아채는 방식이다. 몸을 던져 가족과 영역을 지키려는 짱뚱어의 특성을 활용한 낚시인 셈이다. 약육강식의 세상, 자신보다 약한 생명체를 잡아 먹고 사는 짱뚱어와 생업으로 그 짱뚱어를 잡아야 하는 어부의 운명은 자연의 이치다. 전통을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도 지금 세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먹고 먹히는 생존의 법칙이 짱뚱어에만 예외일 수 없지만, 전통의 계승과 관광을 이유로 또 다시 수업을 내려야 하는 짱뚱어를 지키려는 대책도 함께 추진되면 좋겠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說

아쉬움만 남긴 ‘민원 나열식’ 타운홀 미팅

구체성·설득력 등 허점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호남 방문 일정으로 지난 25일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겼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지역 핵심 과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성과 설득력 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역정가와 시민사회에서도 “준비 없는 민원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타운홀은 광주·전남이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제시할 기회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이 역력했다. 산업단지 지원, AI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요구는 나왔지만, 정책적 근거나 재정 구조, 지역 내 역할 분담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개발허가와 산단 물량만 내주면 기업이 줄을 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타운홀 회의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광주시가 강조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전지 설득을 위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 구상은 빠졌고 1조원 보상 규모만 강조됐다. 무안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약 파기를 둘러싼 불신 해소 방안 없이 국가주도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중재자 역할에 머무르며 뚜렷한 지역 상생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책 설계 없는 요구는 민원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 재정 구조, 지역 간 상생 구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 정부와의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기회 손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설계의 결과다. 광주와 전남은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이지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두 지자체가 민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략과 실행 중심의 협치 모델로 전환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정책 설계 없는 싸움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호남을 향한 당부이자 경고다.

광주자원회수시설 ‘자신만의 잣대’ 안돼

첨단 설비·기술의 진보 믿어야

광주광역시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첫 주민설명회 절차가 26일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삼도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인접한 함평군민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29년 시험 가동을 거쳐 2030년 본 가동을 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로서는 자원회수시설이 제 때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당장 2020년 기준 광주시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355톤으로 이 가운데 470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은 더 늘어 하루 매립량이 550여 톤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매립량을 2023년 197만㎡로 늘렸지만 우려감은 여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도 불을 보듯 뻔하다. 타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하는데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반

아줄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이 유해시설이라는 것도 오해다.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태워감량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열로 인근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중인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지하 25m의 순환시설 위에 테니스장과 어린이물놀이장 등을 설치해 지역의 명소가 됐다.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배출하는 높이 105m의 굴뚝도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최첨단 특수 설비와 기술의 진보가 만든 변화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불법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법에 맡기면 된다. 함평군민의 건강권도 이해한다. 그렇다고 광주와 광주시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정책을 자신들의 잣대로 흔들어서 안된다. 지금은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의 진보’를 신뢰하는 것이다. 최첨단 시설과 기술이 어우러진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광주를 쾌적한 기회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곧 발상의 전환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용 환		편집국장 박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